

“연중 제 32주일”

<http://www.sjkoreancatholic.org/>

[ 루카 20, 27-38 ]

2010.11.7.

## 금주의 강론

[조 옥현 신부님 강론에서]



현대인들은 많은 경우에 죽음을 우리의 삶과 멀리 두고, 자신이 그 죽음과는 관계가 없는 듯이 살고, 그 죽음에 저항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찾아오면 거의 절망에 떨어지고 만다.

이에 교회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생명이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하느님의 생명에 연결되는 부활의 신비에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하느님은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느님이시며, 하느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루카 20,38).

유다 사상에는 부활에 대해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두 부류가 있었다. 즉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였다. 사제계급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던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다(루카 20,27; 사도 23,6-7). 이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한 여인

이 일곱 남편을 맞게 되는 경우를 들어 예수께 질문을 한다. “이렇게 칠 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33절).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거부하신다. 즉 그들이 저 세상을 이 세상의 물질적 연장 내지 반복처럼 상상하는 무지한 표현을 거부하신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세상의 현재와의 ‘단절’과 동시에 ‘새로운’ 상황을 알려 주신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가지만 다시 살아나 저 세상에서 살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장가 드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죽는 일도 없다.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34-36절).

부활은 단순히 육체적인 사실로서가 아니라, 이미 하느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그분과의 ‘일치된 생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느님께서서는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느님이시다”(38절). 즉 그리스도인은 현재 이 순간부터 그분과 사랑의 일치 속에 살아가야 하며, 그 일치가 죽음을 넘어 우리의 육신까지도 살려줄 마지막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기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 가족 동정 및 공지 사항

- **축 입단;** 서병문(바오로)형제님과 정재임(마태오)형제님은 테너 파트로, 정병권(라파엘)형제님과 이형건(라우렌시오)형제님은 베이스 파트로 입단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
- **박 정자 마리아 자매님** 11/2부터 약 2개월의 여정으로 한국및 동남아 여행중에 있습니다.항상 어디에 가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11월 위령성월을 맞아 교회에서 신자에게 주는 특전**  
11월 1일부터 11월 11월 8일까지 묘지를 방문하여 기도하면 하루에 한 연령에게 전대사를 허락 하십니다. 이 전대사는 죽은 이에게만 허락하시는데 가족이나 이웃의 가장 불쌍한 연옥 영혼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8일 동안 8번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마태5,11)”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파 사람들 몇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정해 준 법에는 형이 결혼했다가 자녀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칠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얻어 자식 없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와 살고 다음에 셋째가 또 형수와 살고 이렇게 하여 일곱 형제가 다 형수를 데리고 살았는데 모두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칠 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가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저 세상에서 살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장가드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죽는 일도 없다.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모세도 가시뱃불 이야기에서 주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라고 불렀다. 이것으로 모세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의 하느님이시라는 뜻이다. 하느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 있는 것이다."



♡" 걸림돌과 디딤돌....."♡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토마스 카알라일의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수 많은 삶의 돌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그 돌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데요,

그 돌을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라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디딤돌이라고 말합니다

삶에서 오는 모든 장애를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보는 것과  
또 그것을 발판으로 재기와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것과는 분명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장애의 요소와 같은 돌을  
곳곳에서 만나게 되겠지만,  
그런 돌들은 생활에 무수히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깔려있는 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뒤쳐지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온 모든 걸림돌을  
오늘부터는 디딤돌이라 생각해야겠습니다.

토막 교리

“전례력 (교회 력)은 어떻게 정해지나?”

전례력을 만들 때는 언제나 예수부활대축일과 예수성탄대축일을 중심으로 만듭니다. 예수성탄대축일은 12월 2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예수부활대축일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활 대축일 날짜를 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곧 **춘분(3월21일)**이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뜬 다음 주일을 예수 부활 대축일로** 지냅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대축일 날짜가 정해지면 그 이전 6주간을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수난을 묵상하며 회개하고 속죄하는 기간인 **사순시기**로 지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성령을 보내주시게하셨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오신 날을 **성령강림대축일**로 지내면서 그 사이 기간을 특별히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부활시기**로 지냅니다.

전례주년을 이렇게 **대림시기를 시작으로 성탄시기, 사순시기, 부활시기를 거쳐 연중시기까지 일년을 주기로** 하여 하느님의 구원 경륜을 기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례력(교회력)에서는 한 해 시작을 대림 제 1주일로 지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하느님 나라 완성을 기념하는 그리스도왕 대축일은 바로 그 전 주일 곧 11월 26이 됩니다.